

이 책은 읽는 당신을 위해서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분을 만나서 그 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체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체험한 것들과 성경적인 것들을 토대로 사랑과 진리만을 고집하여 있는 사실대로 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하면 사단의 자녀요, 지옥에 가는 것을 믿는 저는 이 글들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새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를 먼저 믿어보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실행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자들께서 책에 쓰여진 내용들을 직접 행하여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내용을 줄줄이 길게 써서 입증하려기보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고 하나하나 모두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예언 성취와 남은것

요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전 보다 더욱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 재해들, 성적인 타락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 가정불화 및 수많은 가정파괴, 종교계의 타락과 이단의 증가, 물질만능주의, 기근, 역병, 불법의 성행, 전쟁 및 전쟁에 대한 소문, 남북한의 전쟁소문과 정치소용돌이들, 점점 사라지는 사랑, 뜻 모를 동물들의 출현 및 떼죽음 등 많은 문제들 및 사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책을 통해서 모든세상이 말세를 행해 달려가더라도 당신이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세상을 맞설수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은 성경이 다 이미 예언한 마지막 시대를 증표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 증거 기록: 마태복음 24장, 스가랴 12:2-9, 다니엘 12:4, 호세아 1:1-3, 스바냐 1:2-18, 디모데전서 4:1-2, 디모데후서 3:1-5, 4:3, 데살로니가후서 2:1-4, 데살로니가전서 5:3, 누가복음 21:25-26, 아모스 8:11-13 등등)

“아니야,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원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람들의 타락과 세상 문제들이 이 시대처럼 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한 시대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일어난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시간별로 기록된 전쟁 횟수, 자연재해, 살인 등 이 모든 기록들을 보시면 모두가 똑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시대에 증폭하여 가장 많은 횟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사라져야 했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세계에 존재했었나요? 1867년에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때 단 하나의 나무도 단 한명의 사람도 없는 황무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유럽의 90%의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말도 안되는 땅이 되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계 속에 등장한다는 일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야 말로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예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지 2000년이란 세월 이후 1948년 5월 15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다시 세계 속에 등장하였으며, 2000년 동안이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 민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장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고 인구 증가도 가장빨리 증가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닌 성경의 예언대로 당연히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에스겔 37:21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예레미야 23:7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 씨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아모스 9:14-15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사야 66:8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66:9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달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다시 생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에스겔 34:13, 37:11-14, 4:3-6, 예레미야 16:14-15, 31:10, 31:23 신명기 30:3-5 이사야 11:11, 60:9, 스가랴 12:1-7)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으로 예언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아이를 낳는 진통의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가진통에서 시작하여 진진통의 빈번한 횡수와 간격이 점차 좁혀지면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돌아오실 날 이전에 세상에 기이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출산의 진통과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8)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1900년 이후 세계 전쟁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끊임없는 지식의 증가와 과학의 발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덕적, 성적 타락, 인간들의 늘어만 가는 교만과 탐욕들은 이 세대가 기어코 그리 오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에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이미 예언된 올 것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비웃고 비난했지만 비가 내리고 땅 지하의 물이 터지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휩쓸려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떠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오시던, 오시지 않던 간에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 지고 있습니다. 모두 깨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한경 Alfred Kim

